

다카사고 긴자 상점가

다카사고 긴자 상점가가 위치한 지역은 에도 시대(1603~1867)에 여러 대장장이(일본어로는 가지야)가 작은 공방을 연 것에서 마을 이름을 '가지야'라고 지었으며, 그 후로 사람들의 거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.

대장장이가 늘어나면서 마을은 상인들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되었으며 얼마 안 되어 찻집과 유곽도 생겼습니다.

1926년에 다카사고역이 건설되면서 이 지역은 다카사고 긴자 상점가라고 불리는 변화가로 발전했습니다.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어 역 주변은 활기를 띠었습니다. 1984년에 역이 폐쇄되자 상점가는 쇠퇴했고 일부 점포는 문을 닫았습니다. 그러나 현재 이 상점가는 복고풍 매력이 넘치며, 일본의 옛 시대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장소로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마켓에는,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업자와 상점가의 역사를 즐기고자 하는 관광객들이 모두 모입니다.